

어느 목수시절(牧使時節)에 고성목이<sup>1)</sup>가 동가운(東果園)은 안쓰랑(內舍廊) 불컨턴<sup>2)</sup> 네스랑(內舍廊), 셋가운(西果園) 동가운(東果園) 셋베남드르(西梨木坪)<sup>3)</sup> 동베남드르 각천<sup>4)</sup> 칠백실과밭(七百實果田)을 직히고<sup>5)</sup> 스또(使道) 원님에게 진상(進上) 바치곡 처하부재(天下富者)로 사는다, 호련웃이<sup>6)</sup> 원님(員-)이 출상(出使)을 하여 술련(歷)돌게 되니, 목수(牧使)님이 명령(命令)을 하되,

『이제 흔적(痕蹟)만 신<sup>7)</sup> 질(路)을 혼날 혼시(一日一時)로 다끄뉘,<sup>8)</sup> 담벳씨(煙草種)로 석자 보토(三尺補土)에[다 대작넙이(五尺幅) 놓고 그 날 시에 질을 빼라.』

하니, 고성목은 수신했던 차에 그 날 처낙 몽우(夢)네 엄뚱허연<sup>9)</sup> 보니, 대작넙이(五尺幅)에 석자보토틈질(三尺補土路)이 돼여시니, 나갈 보난 풍우대작(風雨大作) 천변(天變)으로 청몰래(靑砂) 백몰래(白砂)가 모여다 질(路)이 돼엿더라.

목수님이 지나오라<sup>10)</sup>

『고성목은 인간(人間)이 아니라, 나 곁은 대로<sup>11)</sup> 장장보토(長長補土)가 돼여시니, 너는 인간이 아니라.』

치사(致謝) 하여두고 떠나분디,<sup>12)</sup> 고성목 생각하되

『나가 이대로 시민<sup>13)</sup> 또로 무신<sup>14)</sup> 위염(危險) 혼 일이 당홀까. 이만흔 일도 천이 감동하여 나를 도와준 건디, 다시 일이 일어나민 어떻<sup>15)</sup> 살아나이. 날랑 간곳웃이 폐해 불저.』

하고, 정월(正月) 초하를날(初一日) 남신(木) 신음냥 산방(山房山)<sup>16)</sup>데레 치긋어오르명

『주우<sup>17)</sup> 주우는 삼방덕이<sup>18)</sup>네 주어라.』

하명 올라부니 고성목인 간 곳 엇어분다.<sup>19)</sup>

1) 인명임과 동시에 이 당의 신면(神名)임.

2) 화순리(和順里)의 지명. 불탄집터의 뜻.

3) 화순리의 지명.

4) 갖가지.

5) 지키고.

6) 홀연(忽然)움이. 갑자기의 뜻.

7) 있는.

8) 닦되(補修).

9) 깜짝 놀라는 모양.

10) 지나와.

11) 말한 대로.

12) 떠나버렸는데.

13) 있으면.

14) 무슨.

15) 어떻게.

16)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산.

17) 미상.

18) 산방덕(山房德). 산방산(山房山)의 굴인 산방굴의 신이라 함. 미모의 산방덕이가 산방산에서 자출(自出)하여 고승(高升)과 동거 중, 관의 욕탈(慾奪)에 절개를 지키고 산방굴에 들어가 화석(化石)이 됐다는 전설이 있음.

19) 없애버린다.

그 뒤, 성칩(成氏) 지칩(池氏) 양칩(梁氏) 박칩(朴氏) 닥성친(四姓親)이 화순(和順梨)을 살게 돼  
여, 옛문세(古文書)를 슝펴보고 고성목이가 살아난 터로 당주<sup>20)</sup>를 모사<sup>21)</sup> 생일(生日) 대소상(大小  
祥) ㅎ는 목으로<sup>22)</sup> 모든 단골(丹骨)이 모아서 정월(正月) 초ㅎ를날(初一日) 팔월(八月) 보름날(望  
日) 토주지관(土主地官) 본향(本鄉)으로 우망(爲望)ㅎ는 신당(神堂)입네다.

— 安德面 和順梨 男巫 許斗平 口誦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770-772.

---

20) 집안에 수호신을 모신 곳.

21) 모시어.

22) 몯으로.